



여성긴급전화 상담 이유… ‘가정폭력’

지난해 1만670건 집계… 74%인 7896건이 가정폭력
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순… 스토킹 상담 급증

여성긴급전화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정폭력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이하 1366제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1만670건이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이 7896건(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성폭력 416건, 데이트폭

력 313건, 성매매 84건, 디지털 성범죄 60건, 스토킹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스토킹은 전년(12건)에 비해 3곱절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1366제주센터는 보고 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8229건

(77.1%)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1259건(11.8%), 상담소 등 유관기관 689건(6.5%) 순이었다.

외국인이 상담에 나선 경우는 전체의 11.9%(1271건)를 차지했는데, 90% 이상이 가정폭력 상담이었다. 1366제주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어와 중국어 상담 통역사를 배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1366제주센터를 통해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경우는 224건이었다. 1366제주센터 관계자는 “폭력 피해자들은 다양하고 복합적

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요청할 지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방문상담과 물품 지원, 실질적인 심리·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366제주센터의 전체 상담 건수는 1만776건이었으며, 이 중 가정폭력이 8087건(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생후 3일 영아 유기 30대 부부 첫 공판
“아무것도 못해줘… 기회달라” 참회

생후 3일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가 법정에서 참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와 B(34)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2019년 출산한 첫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산후조리원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착각한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뤄져 아예 데려오지 못할 줄 알았다. 출소하면 성실히 양육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아이들에게) 의무적인 것조차도 해주지 못했다.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호느끼며 말했다.

이어 B씨는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불행을 안겨 미안하다”고 참회했다.

당초 이날 검찰 구형도 이렇질 예정이었지만,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받은 뒤인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송은범기자

기념품 판매점 화재

제주시내 한 기념품 판매점에서 온열 난방기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5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58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기념품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같은 건물 입주자가 소방시설이 작동하자 건물 밖으로 나와 1층 기념품 판매점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온열 난방기 1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도영기자



설 명절 앞둔 농산물공판장 25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인들이 설 대목에 선보일 과일들을 경매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20명→32명→47명… 코로나 급속 확산

어제 올들어 최다 확진자 기록… 전지훈련단 집단감염 여파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로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25일 올들어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508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선 지난 19일 7명이 확진된 이후 20일 14명, 21일 18명, 22일 27명, 23일 20명, 24일 32명에 이어 이날 47명 등 최근 일주일 사이 181명이 감염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선 420명이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5명,

타지역 관련 6명, 해외입국자 2명 등이다.

이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주 요인으로는 수도권에서 제주로 전지훈련 온 선수단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꼽힌다.

‘제주시 전지훈련’ 사례로 분류된 이 집단감염에선 지난 24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외 확

진자 18명, 도민 10명 등 현재까지 총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집단감염 최초 확진자가 수도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방역당국은 설 연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지역 내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오미크론이 제주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3명이 추가 확인되며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80명으로 늘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설 택배 대란 주범은 CJ재벌”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위반, 설 택배 대란의 주범 CJ재벌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로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29일 차, 11명의 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20일차를 맞고 있다”며 “작년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통해 신명 나게 일하고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한 겨울 거리로 내몰려 파업을 이어가는 이유는 1위 사업자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자신들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설 택배 대란의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이재현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은 약속 불이행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

이어 “자신들이 나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이뤄냈다면 생색을 내던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문제를 ‘노사 간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도영기자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80대 해녀가 물질작업중 숨졌다.

25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쯤 서귀포시 남원을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 A씨가 의식을 잃어 주변에 있던

동료 해녀들에 의해 육상으로 구조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수구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투)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장!

※하례조생 [궁천] ※사라향 [천혜향]

※탐나는봉 [한라봉] ※제라몬 [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미니향(고당도), 오하라베니(궁천변이)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굴, 팔사, 세마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전뿌리 형성과 뿌리순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정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원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한라봉 1년생
- 미니향 2년생
- 제라몬2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오하라베니와세(궁천변이)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